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7년 월 일 (제 회)

북한 6차 핵실험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제 안 자	건설소방위원장
제안연월일	2017년 9월 일

북한 6차 핵실험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17. 9. .
제안자 : 건설소방위원장

주 문

- 북한이 지난 9월 3일 함북 길주 풍계리 일대에서 6차 핵실험을 강행한데 대해 충북도의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162만 충북도민과 함께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고자 함.

제안이유

- 국제사회의 거듭된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강행한 핵실험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공존과 세계 평화를 크게 위협하는 동시에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임을 규탄하며
- 정부는 북한의 그 어떠한 도발도 무력화할 수 있는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결의하고자 함.

- 보내는 곳: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의장, 국방부장관,
국회국방위원회

북한 6차 핵실험 도발행위 규탄

결 의 안

지난 9월 3일 함북 길주 풍계리 일대에서 북한이 6차 핵 실험을 강행한데 대해 충청북도의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162만 충청도민과 함께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강행한 핵실험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공존과 세계 평화를 크게 위협하는 동시에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이번 도발로 인해 향후 북한이 처하게 될 국제사회 내에서의 고립과 경제적 압박 등 국제사회의 제재들은 오로지 북한의 책임임을 확실히 밝힌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행위에 따른 심각한 안보 위기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향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정부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처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북한은 지금이라도 한반도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는 무력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모든 평화적 조치를 수용해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남길 엄중히 경고한다.

1.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그 어떠한 도발도 무력화할 수 있는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라

2017년 9월 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